

### 한형조

## 무문관 발방

72

### 수산의 죽비②

선은 신학이 아니다. 그래서 개념의 초월적 형이상학적 성격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그 실천적 윤리적 함의에만 주목할 뿐이다. 그래서 그토록 언어를 두려워하고 부정한다. 이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할 지 모른다. 개념은 사물이나 사태를 지시하는 규약이고 약정일 뿐이다. 그런데 약해서 그토록 언어를 부정하는가. 대체 언어에 대한 공포(lingua-phobia)는 선이 노리는 궁극적 관심과 무슨 연관을 갖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선 사물은 그렇게 지상한 답변을 꺼린다. 한가한 논의에 시간을 헛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단도직입! 학인들은 공공증을 잡고, 스승이 제기한 물음을 끌어안고 꿰뚫어 구원의 빛을 기억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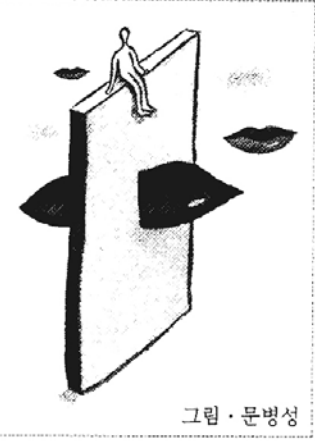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이어진다는 것! 그 비판적 인식은 불교적 전통이 공유하고 있다. 일찍이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는 개념과 판단의 객관적 지평을 확인하려 노력했다. 자아를 지우고 진리만을 남기기 위해 특유의 다르마 이론이 개발되고 이 성과를 명상하는 것을 지례로 여겼다. 대승(大乘) 공관(空觀)은 이 기 획을 순진한 것으로 치부했다. 진리를 객관적으로 언표하는 진술은 성립할 수 없다. 유마의 침묵만이 실재를 다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진술은 그것이 진술인 한 오염과 일탈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공(空)이다. 방법적으로 공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진술을 타파하는 다이아몬드의 검이다. 그 부정의 칼춤 뒤에 무엇이 남는가.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가 새로이 현전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원효는 후자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불교는 삶을 위한 기술이다. 죽음을 위한 조폭이 아니다. (대승기신론)은 이 양 측면을 동시에 조망한 불후의 역작이다. 입파 여탈(立破與奪). 빼앗으면서 주고, 주면서 빼앗는 역설이 불교의 참 정신이다. 선은 이 후기불교의 변증적 관점을 실천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불교는 인간이 구성하는 모든 인식-그리고 그

# 장애물과 싸우지 말라

욕망, 두려움, 권태, 불신, 불안 등 수행의 장애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첫번째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평소 행하는 습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결코 그릇된 습관이 아니다. 습관이란 자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의 본성이며, 어릴 적부터 개발해 온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일을 하고 또 즐겨워한다.

### 수행의 장애③

만약 우리가 이 습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둔다면, 우리가 세간의 유·무정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알게될 것이다. 두번째 우리는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한다. 세간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때면 "이것이 최선이었을까?"하는 의문을 갖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사실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습관적 반응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니다. 습관적 반응을 지켜보는 '마음챙김(정념)'에 그 방법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습관적인 반응을 그대로 받아드리면 된다는 것이다. 마음을 챙기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순간 순간의 경험을 되짚는 작업

##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2



이다. 그리고 욕망, 두려움, 불신 등 수행의 장애들이 찾아오는 순간 잠시 멈춰서서 "아! 내가 여기에 있구나"고 말하면 된다. 이 순간은 바로 자신의 실체를 알게하는 순간이다. 욕망, 두려움, 불신의 깊이와 정도를 스스로 알게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깨달음을 향한 구도보다는 갈등과 싸움으로 점철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장애물과 싸우면 싸움수록, 그것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더욱 분명한 실체를 갖게 된다.

세번째 장애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단지 지켜보는 것이다. 욕망, 불신 등 장애물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 관찰해 보라.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언제 마음을 동하게 하는지.

### '이것이 최선인가' 묻지 말고 습관의 시작과 끝을 살펴 욕망을 중단하세요

수행으로 불법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세번째 수행의 장애물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장애물에 주 목하는 만큼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과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수행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내면에서 욕망, 혐오 혹은 그 무엇을 찾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서 떨어진다든지 강제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수행이

미국의 철학자 알프레드 뉴만박사에게는 유명한 일화 있다. 어느날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온 청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관에 '욕망의 중단, 욕망의 중단, 욕망의 중단'이라고 쓰인 언 단을 내려온 것이다. 이 강의의 주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었다. 이 일 은 비반 강의를 들었던 청중들에게 그가 가장 정직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기억 중에서 욕망, 분노 등의 감정이 폭발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 때의 감정을 곰씹어 보자. 또

마음이 변화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 했던 것을 기억해 보자. 이 과정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교훈을 일깨워준다. 그 과정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수행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덧없고 비인간적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장애를 넘어서는 수행은 바로 먼저 그 유형을 살피고, 그 순간 우리의 경험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애물에 따라 변화하는 마음을 살피고, 단지 그것을 때 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각, 과정, 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이같은 수행을 일깨워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욕망과 탐닉, 또 한편으로는 공포와 혐오를 따르는 것은 어느 쪽도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다만 즐거움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성냄과 공포와 불안은 수행자가 따를 길이 아니라 세속인의 길이다. 마음의 경정시킨 사람은 한편으로 집착을 놓고 또 한편 공포와 혐오를 버려 바른 수행길, 중도를 택한다. 수행의 길은 택한 사람은 마땅히 중도를 따라야 한다. 쾌락이나 고통 따위는 거들떠 보지 않으려다. 그 따위 것들은 다 내어버리겠다. 결심으로, 물론 처음엔 힘들다. 그것은 마치 양쪽 발끝이 채이는 것과 같다. 마치 소망물이나 시계추처럼 앞뒤로 얻어 맞게 된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 禪은 왜 언어를 부정하나

### 인식 · 언어는 무명에 뿌리둔 인위적 도구

곳은 선뿐만 아니라 불교 이해의 관건이 자리한 곳이다. 사족을 달아보기도 한다. 개념과 관념은 서로 짝해 있다. 개념은 관념의 객관적 형태이고, 관념은 개념의 주관적 형태이다. 우리의 삶은 이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다. 견문과 학습, 그리고 교육을 통해 의식의 창고-불교는 이를 아뢰야식이라고 부른다. -에는 수많은 관념들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축적되어 있다. 근대교육은 이들 '지식'을 통해 세상을 장악하는 법을 가르쳐왔다. 이를 통해 한 개인은 주어진 사태를 판단하고 제어하는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그 목표를 위한 경쟁은 가위 전쟁을 방불케한다. 자기 지 교육의 열기를 보라. 일류대학을 향한 무한경쟁은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코흘리개부터 조기교육, 영재교육의 기치 아래 창궐하는 수많은 학습지와 교재들, 오죽하면 보습학원이라는 정체불명의 기관까지 생겼을까. 거기다가 피아노, 태권도 등의 예체능까지 가세했다. 앞으로는 이 눈먼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정보사회는 객관화된 정보가 얼마나 빨리 접근하느냐로 사회적 부와 기회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나 선은 이 기획에 내포된 위험을 우려한다. 분열된 지식은 필연적으로 자기소외로

결과인 언어와 사유-가 모두, 예외없이 실제로부터의 단절이요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식은 욕망에, 다시 말해 무명(無明)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맹목의 의지가 고요한 근원의 에너지를 격동시켜 주체 혹은 자아를 형성시키고, 곧 그 객인 대상을 불러온다. 이들이 결합하여 인식을 구성하고 강화한다. 이때 인식은 세계의 인위적 도구적 분절을 의미한다. 이를 경계(境界)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저것'과 분리시키며, 그 분리를 통해 우리는 특정한 감정적 관향을 갖는다. 모든 인식은 이처럼 세계에 대한 불공정한 태도의 결과이며 또한 원인이다. 생멸윤회(生滅輪廻). 그렇 지 않은가. 이데올로기나 명백한 가치어는 물론이고, 러셀이 말한 가장 객관적이라는 논리적 고유명사조차 이 혼수(混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실재가 아닌 이미지의 세계, 인간의 오염된 인식이 구축해 놓은 환상, 즉 마야(maya)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커튼을 찢어버려야 서늘 시원 실재(實際)와 만날 수 있다. (금강경)은 말한다. "만일 세계의 모습을 이같은 오염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구원이 다가올 것이다(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81

### ◇링컨과 케네디 유사점

유사점	링컨	케네디
1	1846년 의회선출	1946년 의회선출
2	1860.11. 6. 제16대 대통령 당선	1960.11. 8. 제35대 대통령 당선
3	암살자는 존 옥스 무스(1838년생)	암살자 리 허비 오스워드(1938년생)
4	암살자는 남부출신	암살자는 남부출신
5	암살자가 재판전에 사살됨	암살자가 재판전에 사살됨
6	암살후, 극장으로 달아나다	암살후 극장으로 달아나다
7	암살당일 링컨은 경호원에게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으며 그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암살 몇 시간 전에 케네디는 경호원에게 "총으로 포격당한다면 방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8	암살일은 금요일	암살일은 금요일
9	총격부위는 후두부	총격부위는 후두부
10	사살장소는 포드극장	사살장소는 포드자동차공장에서 제작한 Lincoln 차 안
11	링컨부인도 암살현장에 있었을	케네디부인도 암살현장에 있었을
12	링컨 사망후, 그 후임자는 존슨이라는 이름의 남부출신이며 1808년 생이다	케네디 사망후, 그 후임자는 존슨이라는 이름의 남부출신이며 1908년 생이다
13	링컨은 열심히 인권운동을 제창 하였다	케네디도 열심히 인권운동을 제창하였다
14	케네디의 비서 중 링컨이라는 이름의 비서는 케네디에게 달라스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놀라운 일치점이 있다(표 참조). 링컨과 케네디에게는 이와같이 많은 일치점이 있으나 그의 얼마든지 다른 점도 있다. 사람에 따라 이 우연의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또는 그 반대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은 삼십 이상의 길이가 내재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불교와 수학

76

### 공시성

김용운

1초마다 일정한 양의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올 때 1분 후 물통에 담겨지는 물의 양은 간단한 일차방정식

를 보았더니 아침에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식의 일들은 흔하디 흔하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는 우연히 좋은 일을 연속 체험한 인력거꾼의 비극적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용(C. G. Jung · 1875~1961)은 이와같이 인과율이 성립하지 않는 우연의 일치 를 '공시성(共時性 · Synchronicity)'이라고 이름지었다. 공시성의 보기로 곧잘 인용되는

### 링컨과 케네디의 유사점은 카오스적 의미지닌 연기법

(또는 비례식)으로 쉽게 풀 수 있다. 이와같이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결과가 결정되는 현상을 '단순계'라 하며, '인과율'이 허용된다고 한다. 한편 일기처럼 기압, 풍속, 온도... 등 여러 요소가 얽혀서 결정되는 일을 '복잡계' 또는 '카오스적'이라고 한다. 불교철학의 기본인 연기의 이(법칙)는 카오스(복잡계)적인 의미를 지닌다. 복잡계의 현상은 우연으로 대부분 처리되어 왔다. 끝에 어떤 사

건이 미국 대통령에 관한 일이다. 당선된 해의 글자리 수가 0이었던 대통령들, 예를들어 해리슨(1840년 당선), 링컨(1860년), 가필드(1880년), 맥킨리(1900년), 허딩(1920년), 루즈벨트(1940년), 케네디(1960년) 등은 모두 재직 중에 사망하였으며, 단 한 사람 레이건만이 1980년에 당선되어 1981년에 암살 당할뿐 하였지만 1~2cm의 차이로 겨우 목숨을 건졌다. 특히 16대 대통령 링컨과 제 35대 대통령 케네디 사이에는 더욱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운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 (2개월 50만원), 슬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쪼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탄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러내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해명 합장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승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유무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표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송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경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근단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정숙고(정숙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글로써 드러내기를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송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이노」 성분을 대량 추출하여 새로운 기능성을 증명해 지금까지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함유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 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선식(松仙食)」, 「슬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